

역사 재조명 '전라도 정체성' 확립 목표

광주·전남·전북 공동 추진 '전라도 천년' 사업은?

전라 밀레니엄파크·천년 랜드마크 조성 관광자원화 정부 예산지원 필요사업 놓고 3개 시·도 공조 '주목'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광주 시, 전남도, 전북도가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전라도 역사 재조명을 통한 전라도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합과 상생의 기념사업 추진으로 전라도민, 나아가 호남인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밀레니엄 파크와 미디어아트 창의파크 등 정부 협조와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이 적지 않아 향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3개 지역의 공조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선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

진할 '전라도 정사 편찬'은 국사편찬위원회에 한국사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사편찬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관련 학회와 함께 역사서를 만들 계획이다.

전라도 천년 정사 시기·주제별 정립과 함께 지리·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집대성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및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 '전라도 역사편찬 협의기구'를 구성,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천년 문화유산 복원은 전라강영과 전주부성 4대문, 나주목관아를 복원하고, 나주읍성권 재생, 광주 회경루 중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엔 전라도 천년 학술대회와 전라도 특별전을 개최하고 2018년에는 비엔날레 '천년의 꿈' 특별전, 국제수목화 비엔날레 천년테마 전시 등을 통해 지역 문화 진흥 및 문화공동체 실현에 나선다.

또한 '전라도 천년'에 대한 국가·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0월18일을 기념일로, 같은 해 10월15일-21일을 기념주간으로 지정하고 2017년 D-365 카운트다운 행사, 2018년 1월1일 천년맞이 타종식, '천년의 불' 점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2018 전라도 방문의 해'와 '전라 밀레니엄파크' 조성, '천년 랜드마크' 조성은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이다.

호남권정책협의회는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후원을 건의하는 한편, '고향 방문의 날(Home Coming Day)'을 지정, 운영기로 했다. 세계호남향우

회의 고향 방문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

'전라 밀레니엄파크'는 전주에 현대적 밀레니엄 파크를, 나주에는 전통적 밀레니엄 파크를 만들어 문화공간과 미래 도시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주 파크는 국토교통부의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나주 파크는 지방유역 고도 관광자원화 사업, 전통유산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기로 했다.

'천년 랜드마크'의 경우 광주에 미디어아트 창의파크를 조성하고 호남철의공원, 천년 테마숲 및 수목원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당 대표를 만나 내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타진하고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수서발 KTX 증편 등 호남에 대한 접근성과 이미지 제고, 미래 성장 동력 거점 육성을 위해 시·도시들이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jk@kjdaily.com

2016 광주비엔날레 화제작

디오고 이반젤리스타 작 '이미지 사운드...'

CD 사진 인화...명상을 위한 표현



리스본에서 활동하는 디오고 이반젤리스타는 CD 사진을 인화한 매우 독특한 작품 '이미지 사운드와 기술에 대한 개인적인 노트'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바로 명상을 위한 표현이라고 작가는 설명한다. 스케일이 확대된 이 사진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압축된 정보를 무지갯빛으로 반사하면서 인체와 대면시킨다. 디오고의 변화된 시각력을 시뮬레이션하는 기술들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점은 그의 시각적 내러티브의 숨은 컨텍스트 안에 나타나 있다. 그는 인터넷 아카이브의 끝없는 미로를 표류하는 정확한 눈을 통해 이러한 관심을 강력하게 배치해

낸다. 디오고의 다른 많은 작업들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탐구한다. 작품은 제1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정겨울 기자 jwinter@kjdaily.com

중소 육성부터 스키점프 등 오감만족 체험까지...

전남 실감미디어산업 지원센터 본격 가동

현실세계를 가장 근접하게 재현하는 차세대 실감미디어 산업의 요람이 문을 열었다.

전남도는 19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재우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우기종 전남도 정부부지사, 혁신도시 입주기관장,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원센터는 실감미디어 획득·제작, 품질 평가 및 재현에 필요한 연구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제품·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UHD/360·특수 촬영 장비, 스티치프로세서 등 실감미디어 장비 140여점을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사용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최신 기술 교육 제공, 스키점프 체험 일반인도 체험 가능한 시설 운영 등 실감미디어 기술이 현실화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도내에 관련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센터 내 기업 입주 공간도 제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지원센터 개소는 실감미디어 산업이 발전하고 이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빛가람 혁신도시를 더욱 빛내고 한국의 실감미디어 산업을 이끄는 중심 기관으로 발전하도록 혁신도시 정보통신 관련 기관과 동신대와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임재만 기자 icm@kjdaily.com



'2016 호남권 관광활성화 컨퍼런스'가 19일 오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가운데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kki@kjdaily.com

“테마여행·킬러콘텐츠로 승부하라”

호남권 관광활성화 컨퍼런스...對中 타깃시장 선정 주문도

호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테마여행으로의 어필과 킬러콘텐츠 개발,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창조관광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전남도, 전북도와 함께 19일 오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송기석 국회의원, 관광관련 유

관기관 단체장과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호남권 관광활성화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여행보다 테마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권 여행보다 그것을 하나의 테마여행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현주 박사는 "킬러콘텐츠를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호남을 대표하는 관광브랜드 전략을 수립하라"고 조언했다. 또 "중국을 4개 직할시, 23개의 성, 5개 자치구, 2개의 행정특별구역으로 구성되어 단일시장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며 "호남권의 콘텐츠로 공략할 수 있는 타깃시장을 선정하라"고 주문했다.

/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특히 "관광객은 행정구역은 초월해 길을 따라 이동하는 만큼 개별 관광객이 여행하기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사업단 조덕현 단장은 호남관광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교통·호텔·관광 등 하드웨어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축제 등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소프트웨어의 인프라도 부재하며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도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실버리처 많 은 차별화된 콘텐츠가 생명이다"고 강조하고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창조관광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일본서 열려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19일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됐다.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지난 1999년 한국 중국 일본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3년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방안을 모색코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일본 (재)자치체국제화협회 3개 기관이 순회 개최하기로 합의한 이래, 18회째를 맞았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지방정부 교류에 의한 동북아시아 지방의 활성화'였는데, 한국 측에서는 최성 고양시장이 발

제자로 나섰다. 또한 부제 발표로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지역에서의 학습과 실천, 문화'(김영배 서울시 성북구청장), '예술에서 시작되는 지역 활성화'(김재경 경북 문경시 부시장), '지방정부 간의 협력에 따른 관광진흥'(박수범 대전시 대덕구청장)이 이어졌다.

올해 회의는 주제·부제 발표 이외에 교류를 희망하는 지방정부 간의 사전회의가 열리는 교류의 광장, 3개국 지방정부 홍보 부스, 오카야마시의 지방행정우 수사례 지역시찰 등도 진행됐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우리삶에 만남이 필요한 순간

강진만 1위

춤추는 갈대축제

2016.10.27-10.30.

강진만갈대축제
강진읍 오감동일원

&

오감동
3일간의 음악여행

◆ 기획행사

강진만 생태탐방로 걷기대회
남도명품길 걷기
소원을 말해봐
강진만 별빛 가을데이트

◆ 체험·놀이행사

희망과 함께 소원 연과 풍등날리기
강진만 갈대 갑옷 만들기 체험
강진만 갈대 미로정원
갈대공예체험

◆ 부대행사

강진안정식 안상치림 전시 및 시식
갈대숲 김성콘서트
강진 라디오테이링 페스티벌
강진오감동 박·알로원 피터
오감동 시어린트 댄스 파티

10/27(목) **개막 축하쇼** ▶ 갈대축제장(오후6시30분)
출연 : 임창정, 자전거 타는 풍경

10/28(금) **군민과 함께하는 낭만콘서트**
▶ 오감동(오후7시)
출연 : 진시문, 현진우

10/28(금)~10/29(토) ▶ 오감동(오후7시)
디제이 사포와 함께 소리없는 열정의 디스코파티
빅사이즈 크루의 정열의 디스코파티

10/29(토) **우리삶의 희망 콘서트** ▶ 오감동(오후6시)
출연 : 애바라기, 최고은 등

10/30(일) **강진아트홀 축하 음악회**
▶ 아트홀 대극장(오후3시)
출연 : 윤수일 데뷔 40주년 기념 공연

10/30(일) **갈대숲 감성 콘서트**
▶ 갈대축제장 (오후5시)

주최 강진군 주관 강진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찾아오시는 곳 강진남포축구장